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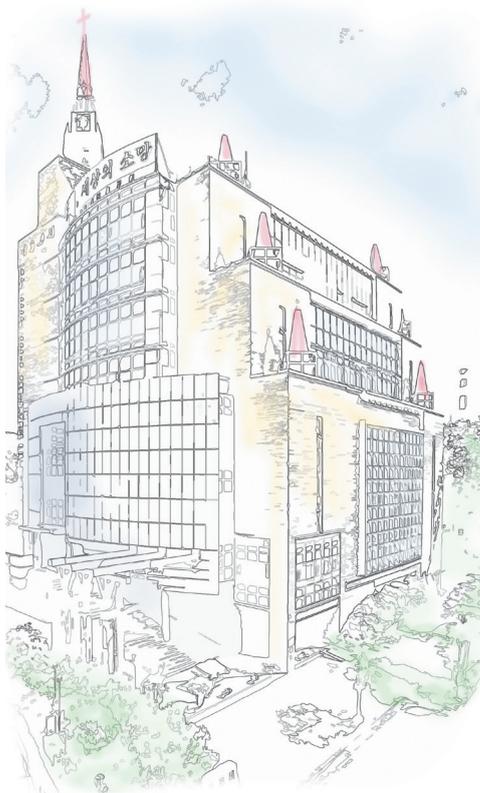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요 1:4)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과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 사랑, 생명 자체이시므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물학자들의 말대로 세포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생명의 구분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 또는 ‘비오스’라고도 하고 ‘조에’라고도 합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운동을 하고 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비오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는 죽음의 반대되는 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 곧 영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35번이 나옵니다.

2. 생명의 출처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은 말씀 안, 예수님 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신 이, 아니 자체 되는 이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40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에만 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끝없는 시간, 혹은 무(無)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모시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은 주님을 통해서 오고, 주님을 모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3. 물리적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창 2:7)

생명에는 물리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물리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이라고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이란 먼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모아 사람 모습을 만들어 놓고 코에 바람(루아크),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living soul,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이 아니고 생명, 곧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4. 영적 생명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 2:4-5)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까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은 살아 있는 영, 생명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영, 살려주는 영(a life-giving spirit)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엡 2:1).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출생하여 이 세상에서 한 번 죽고 영원한 심판에서 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나고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한 번 나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다음주 계속)

총회 재재심 박노철 목사측 15인 장로 무효 판결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건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재판시효제한 없는 사회법에 다시 다뤄져야

지난 5월 14일 총회재판국 모임에서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안건 가운데 세 건이 논의되었다. 서울교회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노철 목사 측의 15인 장로 무효건은 지난 102회기 재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심이 확정되었고, 박노철 목사 청빙무효건은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되었다. 그리고 안식년 무효건은 논의 끝에 다음 6월 모임에서 다뤄진다고 한다.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건은 총회헌법에 정해진 청빙 결의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실제적 무효사유에 관해 판단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측이 주장한 청빙무효사유에 관한 실제적 판단 없이 형식적인 시효문제로 각하했다면 결국 재판시효제한이 없는 사회법에서 다

시 판단 받아야 할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무효건은 우리 측 주장대로 서울강남노회가 당회 결의 없이 청원된 장로증원을 허락하고, 상회라는 이유로 공동의회 소집까지 지시하여 장로 선출을 하게 한 것 모두가 위법이고 무효라는 취지로 102회기 판결이 취소되어 원심이 확정 되었다.

이제 불법으로 임직한 박노철 측 장로 15인은 완전히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동안 법원의 가치분결정도 무시한 채 총회재판국에서 인정했다면서 자기들 안에서는 여전히 장로로 행세하고 호칭하던 것조차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달 모임으로 연기된 박노철 목사 안식년 건도 최초 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내려졌던 원심대로 확정되도록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리며 상세한 판결내용은 판결문이 도착한 후 확인하여 성도님들께 공지할 예정이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1 노송성·이영옥 윤종현1 이주현7 송재현·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김낙형·오정녀 선교사 CBS TV 방영

5월 16일(목)~6월 10일(월)

서울교회에서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난 4월 3일(수)에 아미니콰이어를 인솔하고 입국하여 한국일정을 진행하면서 녹화한 CBS TV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방영일이 확정되었다.

방영일자는 다음과 같다.

- 본방 5월 27일 (월) 오전 9시 10분
- 재방 5월 27일 (월) 오후 11시 10분
- 삼방 5월 29일 (수) 새벽 3시
- 사방 5월 30일 (목) 오후 2시 30분

방송 후 다시보기는 CBS 공식 홈페이지, CBS-TV 어플 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보실 수 있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1시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4회 학술공개세미나

-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 20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 이라는 주제로 제54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갖는다.

제1강 "사후 인간 영혼은 어떻게 되나?"를 주제로 발제자는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논찬은 이상웅 박사(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과 교수)가 맡는다.

제2강 "우주의 종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주제로 발제자는 김은수 박사(안양대학교 신대원 조직신학과 교수), 김의창 박사(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가 담당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란다.

제54회 학술공개세미나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

일시 : 2019. 5. 20(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서울 중로구 교앞로 30 한국기독교학술원 910호
Phone. (02)764-0376-7 Fax. (02)742-5889
http://www.institut.ac Email: institute@institut.ac

2019 흥해작전 준비 시작하다

- 주제 : 영원한 위로(慰勞) -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고전 19:20)

지난 5월 8일(수) 정기당회에서 2019 흥해작전을 예년처럼 6월 6일(목)부터 25일(화)까지 진행하되 특별새벽기도회는 6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한 주간만 외부 강사목사를 모셔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흥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9 흥해작전 주제는 "영원한 위로(慰勞)"이며 주제 성구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고전 19:20), 주제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이다.

행동강령으로는

- ① 새벽마다 기도한다
- ② 함께 모여 기도한다
- ③ 위로받고 기도한다

로 결정하였다.

흥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의 서울교회 상황, 국가의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에 있어서 새벽을 깨움으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흥해를 건너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한다.

선교보고 -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말라위의 교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2-13)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 여러분께 멀리 말라위에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와 후원으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부활절 예배시간에 50명의 재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증서와 함께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기념물로 주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간직하며 시시때때로 세례의 의미를 상기하고, 특히 시험에 빠지게 될 때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신의 신분을 새삼 깨달으면서 이겨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성도들까지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출소를 하면 바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지켜 나가라고 호소했습니다.

먼 아프리카, 작고 가난한 나라 말라위, 그곳에서도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들도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압둘라 모하메드 -이름만으로도 무슬림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라는 재소자가 50명 중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게 된 일입니다. 무슬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즈라는 챙 없는 모자를 쓰고 있던 그가 언제부터인지 페즈도 벗고 주일 설교에 몰입하는 것을 보고 그를 꾸준히 격려하고 관리하여 이번에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년과 같이 이번 부활절에도 시편 51편을 가지고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5, 13)

이미 외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도 말라위의 홍수사태는 심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재난사태가 또 다시 선포되었고 수없이 많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무너졌습니다. 물론 많은 인명 피해도 났습니다.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역부족입니다만 원어나더(One Another) 프로그램이라는 구호체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이를 통한 가정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이 오래되다 보니 자연스레 차량이나 건물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부터 이미 종교였던 것을 구입한 터라 10년 이상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던 이들 트럭들을 계속 수리보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폐기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각 학교의 급식장도 세월이 흐르면서 솔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시멘트 바닥이 갈라지는 등 보수 교체 작업이 시급합니다. 성도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엿그제 부활절 행사의 이모저모를 담은 사진과 동영상상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김미영 권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가브리엘찬양대의 야외예배가 지난 5월 11일 토요일 용인 수지 고기리에 소재한 뮤지엄 '더 그라운드'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불의한 자들과의 영적전쟁으로 인하여 받은 마음밭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일 이른 아침 기쁨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자 갖게된 이번 야외예배는 실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주님 주신 계절의 여왕 5월의 맑고 아름다운 날, 숲속에 아트 스페이스로 자리한 전광영 집사님 일생의 Art work의 선물과도

같은 미술관에서의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경건회 후 뮤지엄 소속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벨기에의 세계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언어와 이미지의 간극을 위트있게 표현기법으로 차용한 화가)의 오마주 형태로 풀어낸 사진전 투어에 이은 다양한 친목활동의 즐거움은 교회가 겪는 아픔을 잠시 잊고 더욱더 헌신에 힘을 새 힘을 받기에 충분했고 부족함 없는 치유의 시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격무중에도 기꺼이 동행하시어 이사야 6:1-5 말씀으로 영적충만한 야외예배를 인도하여주시는 조원영 목사님과 찬양대원들의 화합을 위해 힘을 보태신 지휘자 백경화 권사님, 대자연속 은혜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전광영 집사님·김인숙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허락하신 나의 주님께 호응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합니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영·유아부는 주일예배 2부 시간에 카네이션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 1국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동정

■ 박사학위 취득: 3교구 김경원 성도
(김중철 집사·주성숙 권사의 장녀)
공공정책학 박사, 조지아텍(공대)

■ 금주의 식사: 쇠고기 카레
송인권 장로, 송인수 집사·박한옥 집사 가정 제공
(어머니 최금자 권사 추모 1주기를 맞이하여)
마늘쫀 송금자 권사 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도록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불법 세력이 속히 제거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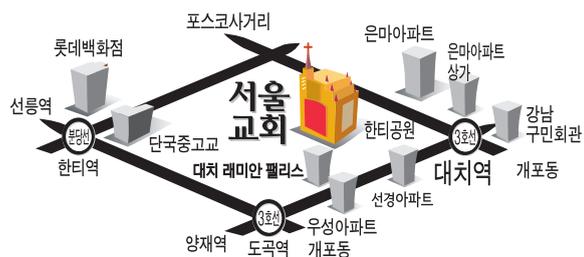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20일	월	대하 31-33		마 14-18	
5월21일	화	대하 34-36		마 19-22	
5월22일	수	스 1-2		마 23-26	
5월23일	목	스 3-7		마 27-28, 막 1-2	
5월24일	금	스 8-10		막 3-6	
5월25일	토	느 1-4		막 7-10	
5월26일	주일	느 5-7		막 11-16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